



감천 발원지 너드령상탕 3면에서 계속

뉴스 다시보기

낙동강 유역 수자원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젠 영남도 물부족... "보령댐에 이어 밀양댐과 합천댐도 위태" (2016. 8. 29. 조선비즈)



가뭄으로 수위가 내려간 경남 하동댐 모습 / 연합뉴스제공

올여름 기록적인 더위가 지속되면서 가뭄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작년 말 가뭄에 대한 기사가 홍수처럼 쏟아질 때는 가뭄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국가차원에서 준비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역시나 그때뿐이었다는 것은 그동안의 여러 경험으로부터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우기인 6월에서 9월 사이에 물을 모아둔 후, 이를 잘 보관했다가 다음해 봄철에 사용해야 하는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댐 개발은 필수적이었으며, 그 결과 상대적으로 많은 댐을 보유하게 되었다. 낙동강 유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안동댐, 임하댐, 합천댐, 남강댐, 밀양댐을 비롯한 크고 작은 댐들을 축조하여 댐에 저장된 물을 이용해오고 있다.

가뭄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인 방법은 댐과 같은 물그릇을 가능한 많이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및 생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댐을 새롭게 건설하는 것은 과거와 같이 쉬운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물을 모아두어야 한다는 과제는 분명 하지만, 모으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한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 '그린 인프라 시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린 인프라 시설'은 생태지류지, 침투도랑, 식생수로, 옥상녹화, 투수성 포장, 빗물통 등의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댐처럼 거대한 구조물을 축조하는 것보다 작은 시설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주변에 분산 배치하여 자연스럽게 물을 저장하고 지하로 침투시킴으로써 유역 수자원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낙동강권역 수자원 상황은 예년 대비 85~90% 수준으로 우리나라 강수량의 연간 변동성을 살펴볼 때, 아직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변화되고 있는 사회 환경을 직시하지 못한 채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장된 위기의식의 조장 또한 잘못된 정책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한 지방정부차원에서 그린 인프라 시설 확대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기대해본다.



김상단
부경대학교 교수

지면안내 > 1면 녹조와 먹는 물 이야기 & 뉴스 다시보기 / 2면 기고 & 현장인터뷰
3면 문화 & 연구동향 / 4면 소식 & 독자참여

녹조와 먹는 물 이야기

저(低)산소 해소 및 조류제어를 위한 물 순환



테스트 중인 물 순환 장치

연안 및 저수지의 저산소 현상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오염된 퇴적물에 의한 용존산소의 소비, 둘째, 온도 구배로 인한 성층현상으로 용존산소의 공급이 제한되어 저층부의 용존산소가 3mg/L 이하로 낮아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여름철 저수지의 성층현상으로 표면의 수온이 상승하고 상·하층부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유입된 영양물질이 상층부에만 분포하여 조류의 급속한 성장을 유발시켜 어류에 해를 끼치거나 건강을 손상시키며, 상수원수의 냄새와 맛에 영향을 주거나 유해물질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저산소 현상 및 조류 제어를 위한 대책으로 퇴적물의 준설 및 피복을 위한 황토살포 등이 있으나, 지속적 관리의 부담과 2차 환경오염 발생 및 범위의 제한 등 어려움이 있다.

연안 및 저수지의 저산소 현상과 조류 제어를 위한 대안 중 물 순환 장치가 있다. 물을 고루 섞어주는 장치다. 수온에 의한 성층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상층부의 높은 용존산소를 하층부에 공급하고, 하층부의 낮은 온도의 물을 상층부로 이동시켜 표면의 수온을 낮춤으로써 조류의 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이다. 결국 상·하층 간 물의 혼합으로 조류의 희석 및 빛의 투과가 적은 저층부에서의 조류성장 저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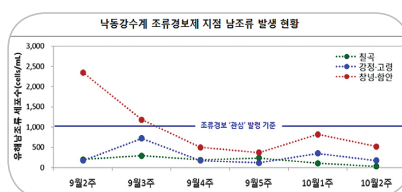
물 순환 장치의 적용 사례는 외국에서는 저수지의 조류저감 및 용존산소 전력비의 절감, 탁도 감량, 악취제거 등의 효과를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저수지 및 수원의 조류 제어, 악취 제거, 투명도 향상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들어 지류하천의 조류 제거를 통한 강 본류의 조류 제어 연구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기대되지 않을 수 없다.



이병현
부경대학교 교수

녹조예보

가을철 남조류, 환경 여건에 따라 변동



9월 중순 이후 경북, 경남 지역에 내린 강우의 영향으로 낙동강수계 주요 지점의 남조류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9월 4주부터 창녕·함안 지점의 남조류

세포수가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기준 미만으로 유지되어 9월 27일에는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해제되었다. 현재 낙동강 주요지점의 수온은 20℃ 전후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기상여건 및 환경조건에 따라 낮은 수온 범위에서도 증식하는 사상형 남조류가 일부 지점에서 증감을 반복하는 등 출현량이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이혜진 연구사

※ 녹조 발생현황은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 조류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강 수자원의 농업용수 활용 과제



김광섭
경북대학교 교수

4대강 16개의 보(洑) 설치를 통해 저장한 수자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필요성은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5년 전국적으로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4대강의 물을 활용하여 가뭄기간에도 용수공급이 가능한 수리

안전담(水利安全全)의 비율을 현재 60% 수준에서 10년 빈도 가뭄 시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공주보와 예당지를 잇는 27.4km 구간의 물을 끌어오기 위한 도수로 공사가 현재 공정을 20% 정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상주보와 덕기지를 잇는 도수로 공사(상주보와 화달지 구간에서 덕기리로 변경)가 이미 완공되어 관개용수를 경작지로 보내는 용수로 공사를 올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진행중이다. 이런 과정의 용수공급을 통해 해당지역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의 양적인 면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가뭄 시기에 4대강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녹조현상 등 수질과 관련하여 풀어야 할 숙제를 함께 안고 있는 실정이다.

현 시점에서 4대강에서의 건전한 물 순환 및 용수활용 개선방안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4대강 본류로 유입되는 물의 오염원에 대한 보다 세밀한 조사와 분석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다각적인 분석에 기초한 오염물 제어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가뭄 극복을 위한 농업용수 공급방안과 함께 사용된 농업용수가 다시 강으로 유입되는 수량 및 수질의 보다 정확한 평가를 통한 관리방안의 제시가 4대강 건전성 확보의 필수조건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4대강 분류 유입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농배수 조정지 활용수의 특성분석과 평가를 통한 오염저감 방안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대강 수자원 활용방안 앞서 녹조문제 해결 시급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정부가 4대강사업 이후 수자원 활용방안 찾기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고민대로 4대강사업으로 제대로 확보된 수자원이 있는가? 정부는 22조 원을 들여 4대강의 준설과 16개 보 설치를 통해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가뭄을 해결한다고 했다. 하지만 가뭄은 지류와 지천인 상류에서 발생해 4대강 보에 가두어 둔 물은 쓸데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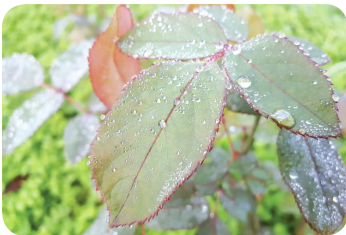
지난해 정부는 금강의 상류인 보령댐 유역의 가뭄 해소를 위해 금강의 물을 보령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도수로 공사에 625억원을 들였다. 이후 수공은 올해 2월 16일부터 32일간 총 84만㎥의 물을 보령댐으로 공급했으며, 댐 저수량이 관심단계를 회복한 3월 18일 이후 가뭄을 중단했다. 더구나 이번 국감에서 예비타당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전 절차를 생략한 채 추진된 보령댐 도수로가 운영수익에 비해 운영비용이 37배나 소요되는 낭비성 사업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4대강 보에 갇힌 물은 여름이면 녹조라테로 뒤덮여 안심할 수도 없는 물이다.

WHO는 녹조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의 먹는 물 기준을 1ppb(μg/L)로 정하고 있다. 동물실험 결과를 인간에 적용한 기준으로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음료수의 양 2리터를 음용할 경우, 마이크로시스틴은 독성 당량으로 1ppb 이상이면 건강에 유해하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녹조전문가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구마모토 보건과학대)는 녹조 독소가 토양의 자연정화 능력을 넘어서는 양이 유입될 경우 농작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는 '녹조 독소가 수중생물과 농작물, 인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오랜 세월 연구해온 이 분야 전문가다. 그는 녹조 독소가 인체나 어패류에 흡수될 경우 자체 분해를 통한 해독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당장 급한 일은 확보된 수자원의 활용방안이 아니라 녹조라테로 변한 4대강의 녹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정부는 문제를 덮기 위한 낭비성 대책을 중단하고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 그 다음 4대강사업의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한 과학적 검증을 추진하고, 4대강에서 녹조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과제다.

물과 생활 이야기

한 방울의 물이라도



‘터널’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평범한 자동차 판매사원이 딸의 생일잔치를 위해 집으로 가던 중 터널이 붕괴되는 불의의 재난을 당하게 되고, 붕괴 현장에서 구출되기까지 35일 간의 과정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크게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한사람의 생명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소방관의 사명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고령사회에서의 노인의 입지, 정부 관료의 보여주기 행태나 언론 취재 방식 등을 꼬집기도 하고, 물의 소중함에 대한 생각도 하게 했습니다.

붕괴된 터널 속 찌그러진 자동차의 좁은 공간에서 안팎을 넘나들며, 생존을 위해 물을 아껴야하는 절박한 모습이 여러 차례 클로즈업 됩니다. 0.5리터 생수 2병을 눈금을 그려가며 조금씩 마시다가, 뜻밖에 만난 또 다른 희생자와 어쩔 수 없이 나눠 마시기도 합니다. 생수병의 물이 바닥이 났을 때는 어지러이 나뭇구멍은 콘크리트 파편에서 튀어나온 철근을 따라 흘러내리는 한 방울의 물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졌는지요. 결국 자신의 오존을 받아 마셔야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물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차에도 항상 물이나 손전등, 배터리 등 비상용품을 비치해두어야겠다는 생각도 갖게 된 기회였습니다.

- 수필가 허봉조

현장인터뷰

깨끗한 수질과 생태환경, 김천시 환경사업소



김천지역의 생활하수와 공장 폐수를 정화하여 깨끗한 물로 방류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김천시 환경사업소를 찾았다.

부지면적 134,340㎡, 1일 최대 8만톤(하수 6만톤, 폐수 2만톤)을 처리하는 김천시 환경사업소에서는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친환경적 하수고도처리기술인 TEC-BNR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 완충저류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자원화시설, 하수슬러지 건조처리시설 등 다양한 시설의 하·폐수를 함께 처리·운영함으로써 처리수질의 향상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주민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 유입부터 방류까지 하수처리 전 과정을 공개하며, 시청각 상황실을 완비하여 체험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테니스장, 산책로, 자전거 도로, 어린이 교통공원, 광장 등을 갖춘 환경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환경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작은 규모의 다양한 하·폐수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 2015년 환경관리실태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깨끗한 수질과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취재팀

낙동강 발원지를 찾아서

<제7편> 감천

감천(甘川)은 김천지역의 중심을 흐르는 하천이다. 물길 69km, 유역면적 1,009㎢로 14만여 명의 주민생활의 젖줄이 되고, 김천 지방산업단지를 비롯한 각종 공업단지와 개령평야, 금릉평야의 핏줄이 되는 생명원의 실체적인 존재감이다.



김천시 대덕면 대리에 있는 감천 발원지 우두령샘(우두령의 옆에 있는 샘), 일명 '너드령상탕(너드령은 넓다, 상탕은 제일 위의 물이란 뜻)'은 감천 시내에 있는 북동쪽을 향해 물길을 연다. 69km의 장도를 헤쳐 흐르면서 자신의 몸통에 존재하는 자연과 사회, 인문 생태계의 피가 되고 젖이 된다. 김천에서 3번 국도를

따라 지레, 대덕면을 지나 문의리와 봉산 우두령 가까이 오면 '감천 발원지(대리마을 뒷산)' 안내표지판이 나온다. 배티고개-봉산(봉우산)-시코봉-수도산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남단준령에 감천발원지가 다소곳하게 자리 잡고 있다. 봉산과 수도산 사이에 있는 우두령고지 옆 작은 골짜기의 샘에서 뿜어 나오는 물은 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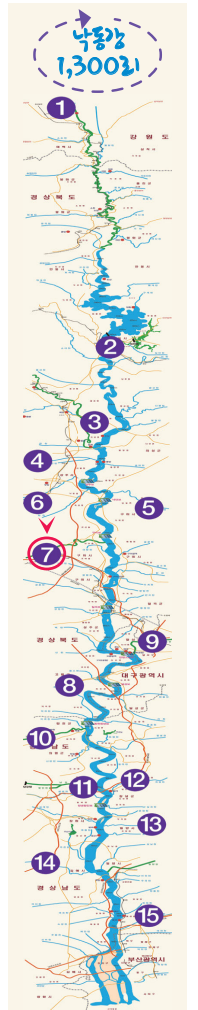
시원하다. 그야말로 청정한 기운이 온 몸을 감싸고도는 약수다. 김천에서 '감천'과 '직지사천'은 형님과 아우로 통한다. 감천은 69km(유역면적 1,009㎢), 직지사천은 16.5km(유역면적 129㎢)의 몸체를 가지고 김천지역의 젖줄이 되고 있다. 대덕산과 수도산의 수도지맥에서 탄생한 감천이 형님뻘이고, 갈미봉 광천에서 발원한 직지사천이 동생뻘이다. 직지사천의 또 하나 최상류 쪽지물터인 황악산 운수리 발원샘은 직지사천의 지류인 백운천의 영역으로 이 또한 직지사천의 발원지구로 알려져 있다.



김천시와 김천문화원이 서로 뜻을 같이하여 해마다 이곳 감천 발원지에서 '감천 발원제(1999년 11월 30일 제1차 발원제)'를 지내면서 감천과 그 속의 물 문화에 대한 애정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음에 그 의미가 크다고 여겨진다.

(사)낙동강공동체 대표 김상화

- ①황지 ②반변천 ③내성천 ④영강 ⑤위천 ⑥병성천
⑦감천 ⑧회천 ⑨금호강 ⑩황강 ⑪남강 ⑫계성천
⑬청도천 ⑭화포천 ⑮양산천



여행스케치

낙동강 발원지로부터 물따라 맛따라 너드령상탕을 따라 오르는 명상의 길



호위하여 단아하면서도 멋스러움이 있다.

넓게는 백두대간에서 동남쪽으로 수도산과 국사봉-삼도봉-대덕산으로 이어지는 수도지맥(修道支脈)의 능선을 쫓을 수 있다.

▶ 먹거리



않을 수 없다. 육즙이 풍부하고 돼지고기의 특유한 냄새가 거의 없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을 느끼게 해주는 '지레 흑돼지'의 참맛을 느껴볼 수 있다.

감천의 발원지, 너드령상탕을 따라 오르는 길은 완만하고도 길다. 천천히 걷다보면 사색과 명상의 길이 되는 코스다. 샘터 가까이 가면 신비한 감촉이 발끝을 휘감아 돈다. 듅직한 돌들이 많은 양의 이끼를 품고 자연의 양탄자 같은 쿠션이 되어준다. 산두릅나무와 산벚나무, 층층나무들이 잡초들과 어우러져 돌계단을

감천 발원지에서 김천으로 내려오다 만나는 첫 번째 먼 단위는 대덕면이고,

두 번째가 '지레 흑돼지 마을'로 유명한 지레면이다. 지방이 적고 쫄득한 맛으로 담백함이 좋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흑돼지는 조선시대 때부터 임금님께 진상된 반상일품의 음식이었다고 하니 소개를 하지

연구동향

● 경남도내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관리를 위한 조류제어 방안 연구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매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녹조 발생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지원, 「경남도내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관리를 위한 조류제어방안」 연구를 오는 12월까지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남도내에 소재한 농업용 저수지에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남조류 및 마이크로시스틴의 제거 효율을 평가하고, 마이크로시스틴 및 잔류 유무에 따른 생태독성 평가도 실시하여 향후 조류제어방안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Now

부산시, 낙동강하구 염분 상시모니터링체계 구축



부산광역시에서는 낙동강하구 주요 지점의 염분, 수심, 용존산소 등에 대한 실측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 및 활용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염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낙동강하구 염분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지금까지 월1회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현장 실측을 통해 낙동강하구의 염분, 용존산소 등 자료를 확보하던 방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해수유통에 따른 염분의 일부 유입상황에서도 수문조절에 의하여 언제든지 적정 범위 내 염분 제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추진단 김윤리

「울산환경교육 한마당」 행사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에서는 9월 30일(금)~10월 2일(일)까지 3일간 울산대공원 남문 환경에너지관 인근에서 울산환경교육 한마당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환경교육으로 도약하는 에코폴리스 울산'이라는 주제로 환경교육 홍보 및 체험 부스 운영,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울산대공원 생태체험, 환경교육 교구 전시 및 체험 부대행사 운영 등으로 구성되었다.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는 울산 환경교육의 거점기관으로 2016년 4월에 개소하여, 울산의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토대로 전문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여시민이 행복한 환경도시 울산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김희철

「저탄소명절(추석) 보내기」 캠페인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에 맞이하여, 대구광역시, 대구지방환경청,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대구 기후·환경네트워크,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시민단체 및 그린리더 등 50여명은 9월 6일(화) 동대구역사 내에서 「저탄소명절(추석) 보내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추석선물은 친환경상품으로, 물품 구입은 그린카드로, 고향길은 대중교통으로, 명절음식은 먹을 만큼, 성묘 갈 때는 대화용품 사용하기, 전기플러그 뽑기 등의 내용으로 시민홍보를 전개했다.

-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진승우

Festival



▶ 창원조각비엔날레(9.22~10.23, 경남 창원시 용지호수공원, 성산아트홀, 문신미술관) ▶ 대구사진비엔날레(9.29~11.3, 대구시 달서구 문화예술회관, 중구 봉산문화회관) ▶ 진주남강유등축제(10.1~10.16, 경남 진주시 남강 일대) ▶ 2016부산아시아 페스티벌(10.1~10.23,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 연제구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등) ▶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10.5~10.11,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등) ▶ 울산마두희 축제(10.14~10.16, 울산시 중구 문화의거리 일대) ▶ 울산1999전문화축제(10.14~10.16, 울산시 중구 태화강대공원 일대) ▶ 부산차이나타운 특구문화축제(10.14~10.16, 부산시 동구 초량 차이나타운특구 등) ▶ 부산 고등어축제(10.14~10.16, 부산시 서구 송도해수욕장 일대) ▶ 2016영주풍기인삼축제(10.15~10.23, 경북 풍기읍 남원천 둔치 일대) ▶ 부산불꽃축제(10.21~10.22, 부산시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광안대교 일대) ▶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10.28~10.30, 경남 사천시 시청 일대) ▶ 영남 알프스-별헤는밤(10.28~10.29, 11.4~11.5, 울산시 울주군 작천정 별빛야영장, 복합웰컴센터) ▶ 거제섬 꽃축제(10.29~11.6, 경남 거제시 농업개발원) ▶ 선암호수 불꽃축제(10.29, 울산시 남구 선암호수공원 일대) ▶ 마산가고파국화축제(10.29~11.7, 경남 창원시 마산항 제1부두 일대) ▶ 청송 사과축제(11.4~11.7, 경북 청송군 청송사과공원 등)

독자참여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게재되면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낙동강수계 통합물관리 연구네트워크

발행·편집·인쇄 : 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녹색환경지원센터 (5114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20 국립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416호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 대표전화 055-213-2768 | Fax 055-264-6889 | sym@gngec.or.kr

News Room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개최

환경부, 국토교통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K-water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물포럼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행사를 대구 엑스코에서 4일간(10.19~22) 개최한다.

「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과를 이어가고, 물관련 이슈의 선점과 물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본 행사는 국제사회의 물 문제 해결, 물산업 진흥 및 해외진출 확대, 국민의 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세부 프로그램으로 기획·구성되었으며, 물산업 발전과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제1회 아름다운 부산, 동천사랑 걷기대회 개최

환경수호운동연합회와 한국남부발전(주)이 공동으로 10월 21일(금) 13시 30분부터 동천사랑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부산의 도심 생태하천 복원을 기념하기 위한 이 행사는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시작하여 동천 일대를 시민이 함께 걸으며, 자연이 숨 쉬는 동천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의 대표 도심하천인 동천은 1970년대 공업화에 따라 도로 및 주차 등을 위해 복개되어 하천 본연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었으나, 2013년부터 추진된 동천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생태하천으로 복원시키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숨어 때가 뛰어노는 등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환경관련분야 전공자 취업역량 강화 교육」 실시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와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10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환경관련분야 전공자 취업역량강화 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환경 관련분야 전공자들에게 특화된 취업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교육생들의 진로형성을 지원하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취업전선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역량을 강화시키는 등 다른 취업프로그램과의 차별화에 중점을 두었다. 환경 분야 선배 취업자들의 멘토링, 인사담당자 교육, 취업컨설팅(취업마인드 고취, 취업분석, 입사지원 클리닉, NCS 전문교육, 면접교육, 토론회 코칭) 등 꼭 필요한 프로그램 외에도 교육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추가 편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수료 후에도 양 센터에서 취업 정보제공, 상시교육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된다.